

문화



대구 '골목투어'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진골목'.

# 100년 역사 고스란히... 대구 골목길을 걷다

전국 어느 도심에나 있는 골목길. 대구시는 그 골목길에 이야기를 입혀 '골목투어(골목 문화여행)'를 진행한다.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투어는 지금, 전국민의 여행코스가 됐다. 골목길 투어가 시작된 2008년, 참가자는 28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6859명으로 크게 늘었고, KBS 1TV '1박2일'에 소개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2만5000명이 다녀갔다. 지난 10월 어느날의 주말, 둘러

본 대구 골목길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조금은 유치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흠뻑 젖어 있던 이야기들을 알알이 엮어낸 재주가 인상적이다.

▲3·1운동길을 지나다  
대구 골목길 투어는 모두 3코스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가장 인기있는 코스가 대구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2코스(근대 문화의 발자취)다. 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다.

대구시 중구 서성로 대로변에서 3분쯤 걸어올라가자 '탄세상'이 시작됐다. 오래된 붉은 벽돌과 담쟁이 덩굴에 덮인 주택들. 여기가 골목길 투어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주택이다.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들. 이곳에서는 계속 시간이 흐른다. 블래어 주택은 지금 '교육·역사 박물관'으로 활용중이다.

이웃한 켈니스 주택은 '의료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아 청진기와 왕가에서 쓰던 찜질기, 1900년대의 의무 기록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들을 전시중이다. 2층 휴게 공간은 영화 '모던보이'의 촬영장으로 쓰였다.

▲이상화 시인을 만나다  
선교사 주택들에는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 시비가 서 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으로 시작하는 노래다. 이곳이 노래속에 등장하는 청라언덕. 계성학교에 다니던 박태준이 신명여고 여학생을 짝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얽힌 곳이다. 탐방객들이 나즈막히 '동무생각'을 부르는데, 가을날 어울리는 풍경이다.

바로 옆은 3·1 만세운동길. 90개의 계단을 내려간다. 1919년 3월 8일 대구 신병, 대구고보 학생들이 집회가 열리던 서문시장 큰 장터로 향하던 길이다.

계단을 내려가면 만나는 곳은 1899년에 건립된 계산성당(사적 290호)으로 서양 건축양식을 도입한 영남지역 최초의 고딕양식 건물

이다.

이제 이상화 시인을 만나러 갈 차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이 시인이 살았던 고택까지 가는 길은 재미있다. 계산성당에서 고택까지 이르는 50여m 보도를 걸을 지날 때 당신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구를 만날 수 있다.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곳,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이 시인의 모습을 만나고, 그 길을 지나 시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약전골목에서는 처음 보는 한약 경매현장은 재미있고, 경매장에 가득한 한약 냄새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술술 허기가 질 무렵, 찾게 되는 곳이 진골목이다. '길다'라는 의미의 '진골목'에는 '진짜' 옛날집들이 가득하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2층 양옥인 '정소야과'는 세월의 더께가 가득하고, 사람 한두명 겨우 지나다닐만한 골목길에는 오래된 집과 맛집들이 가득하다. 대구시가 '대구 10미(味)'로 선정한 따로국밥, 야끼우동, 남작만두 등을 먹고 나면 2시간에 걸친 '골목투어'도 막을 내린다.

### ▶골목길 투어하려면

가장 인기가 많은 2코스는 모든 공간이 반경 1km 안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발품을 들이지 않고도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다. 코스로 짜놓은 각각의 공간들이 '신기할 정도'로 인접해 있어 지루할 새가 없다.

골목길 투어는 해설사와 함께하면 훨씬 즐겁다. 매주 둘째·넷째 주 토요일, 셋째 주 목요일(오전 10시~낮12시)에 해설사가 동행하며 특히 문화재 18개소를 둘러보는 '야경투어'는 세번째 주 금요일(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안내 신청은 중구청 문화관광과(053-661-2194).



골목길 투어에서 만나는 스토펙시 퍼니처.

교육·역사 박물관으로 활용중인 블래어 주택.

붉은 벽돌집·담쟁이 덩굴 주택 '탄세상' 시작  
선교사 주택은 '역사박물관' '의료박물관'으로  
투어 마지막엔 진골목 '대구 10미' 꼭 맛보아야

##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

국립광주박물관, 올해말까지 문화체험 행사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5일~12월 3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별 강의와 문화재 관련 영상을 관람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 행사다.

프로그램은 ▲남도의 고고학 ▲고고학과 발굴조사 ▲세계문화유산과

고인돌 ▲선사시대의 장신구 ▲영산강 유역의 용관묘 ▲전남의 불교미술 ▲강진과 고려청자 ▲다시 태어난 우리 문화재 등으로 진행된다.

또 영상 교육은 ▲조선의 화인-김홍도 ▲도자기 ▲아시아 ▲차마고도 ▲신창동 등을 주제로 펼쳐진다.

모든 강의는 무료이며, 학교별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570-7053.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어린이 눈으로 본 '시장 풍경'

느티나무숲, 19일까지 '시장이 반찬, 무엇이든 그림전'

2011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느티나무숲'은 오는 19일까지 대인시장 내 시장속 박물관에서 '시장이 반찬, 무엇이든 그림'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대인시장을 찾은 아이들이 나무판에 그린 그림을 모아 선보인다. 이들 아이들은 지난달 8일

대인시장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가졌고, 그 결과물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접수를 통해 240명의 어린이가 행사에 참여해 '시장 풍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이중 183명의 작품을 골라 전시한다. 문의 062-233-1420.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일본 전통관화 우키요에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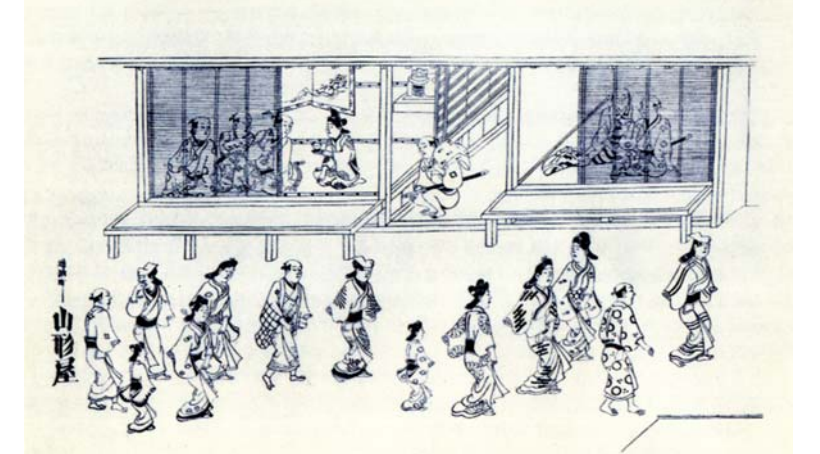
우제길미술관, 27일까지 '국제판화워크숍'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27일까지 제8회 '국제판화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일본의 전통관화인 우키요에를 소개하고, 관련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우키요에는 가부키의 배우나 유곽의 유녀들을 그린 미인화도 요즘의 연예인 포스터나 브로마이드처럼 서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

일본 도자기의 포장지로 유럽으로 건너가 당시의 예술가들을 매혹시켰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에도 유곽의 아름다운 미인을 담은 '미인화'와 가부키의 우상이었던 유랑배우 '야쿠사예' 등이다. 문의 062-224-6601.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히시가와 모로노부 작 '아게야마치의 행렬'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보약, 흥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추환